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2. 중동지역 정세 안정을 위하여
3.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4. 한국 5만/미국 30만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5. 디모데프로젝트 2,4,5단계를 위하여
6. 청춘시니어대학을 위하여
7. 하나님의 VIP 4기 개강을 위하여(9/16)
8. 수요성령예배를 위하여
9. 장년주일성경 공부를 위하여
10. 터키선교를 위하여(10/15-26)
11.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12.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순복음제일교회 - 최병삼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Peter An
- ▶ 밀알선교단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업
- ▶ 사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 ▶ 소울싱어즈
- ▶ 지역교회 살리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혜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의료사업 Healing 153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담임 목사	최성은	원로 목사	문창선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헴)	민철기/253-444-8853	은퇴 안수집사	이세진 정영길 좌자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안광일/253-335-9101	사무 안수집사	유성렬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갠빈 리처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엄슨
영어부 목사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서무	명희터너 주영컬크우드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남궁근/253-753-8310	관리	명숙헨리 토루마즈다
행정 목사(유스&영여청년)	안재훈/253-365-1105	반주자	조혜경 유상신 주사랑 윤지우
한어권 공동체 목사	전우일/504-427-4590	1부 지휘자	권수현
마더와이즈/유년부 사역지원	최수진/615-516-0389	2,3부지휘자	김민희
영아/유치부 사역지원	남궁민희/253-753-8312	찬양 인도	채병관 이정빈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헴)	봉숙옥/253-359-7869	통역	김경곤 이한피
미디어전도사	장선범/469-353-3446		
협동목사	장영준/425-444-1669		
사랑부(간사)	이종열/253-228-7734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놓는 성령공동체"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 535-2240 www.tfbc.org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렘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주일성경공부 Sunday Service		
장년부	1부 한어예배	AM 07:55	장년(한어)		AM 09:30
장년부	2부 영어예배	AM 09:20	Korean Adult		
장년부	3부 한어(통역)	AM 11:00	장년(영어)		AM 11:00
한어청년	KCM	AM 11:00	영어청년 YAM		PM 01:00
영어청년	YAM	AM 11:00	한어청년 KCM		PM 01:30
학생부	Youth	AM 11:00	학생부 Youth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09:20/11:00
사랑부(장애부)	Agape Class	AM 11:00	영아부 Nursery		AM 08:00/09:20/11:00
수요예배 Wednesday Service			금요일 Friday		
장년한어	Korean Adult	PM 07:00	한국학교 KLS		PM 07:00
영어	English Adult	PM 07:00	학생부 Youth		PM 07:00
유년부	AWANA	PM 06:45	영어청년부 YAM		PM 07:30
유치부	AWANA	PM 07:00	한어청년부 KCM		PM 07:00
토요일 Saturday			새벽기도 Early Bird Prayer		
한어청지기모임		AM 07:30	한어/영어 KM/EM		AM 06:00

주일에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인도: 민철기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설교: 최성은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3부 / TFBC 찬양팀

* 교 독 문 1부 / 36번 이사야 40장(1)
3부 / 36번 이사야 40장(1)

기 도 1부 / 박종길 안수집사
3부 / 이재찬 집사

봉 헌 1부 /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41장(1절)
3부 / 오금철 마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거룩한 곳

성도의 교제 3부 / “야곱의 축복”

공동체 소식

성가대 찬양 1부/ “십자가의 길 따라가리”
3부/ “그 사랑”

* 성경 본문 다니엘 13:13-30

말씀 선포 [2018 하나님의 기준 시리즈]
12. “신의(信義) 믿음과 의리”

* 응답 찬송 1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3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 축 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31,34)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2018 하나님의 기준 시리즈] 11. “감사”

□ 본문: 다니엘 6:10

“감사”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능력으로, 예배의 핵심 내용과 태도가 됩니다. 예배란 내가 믿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은 감사가 사라지면, 고통 증가, 자기 중심적 삶, 사랑과 용서의 실종, 다름과 미움, 감사와 거룩 상실과 같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사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동시에, 내가 사람들과 환경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환경이 더 악화될 때 혹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평생 갖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의 인생을 망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불평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활동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평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40년 가까운 시간으로 늘리고 수십만의 영혼을 광야에 묻히게 만든 것도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는 일제 치하의 조선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믿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과 세상의 유익을 맞바꾸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그의 삶을 주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도 더 뛰어난 체력과 지혜로 바벨론 청년들을 압도하고 중국에는 바벨론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정치인들은 계략을 써서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고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보여주듯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 ‘위기’는 항상 축복의 기회로 탈바꿈될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한 다리오 왕이 악법의 멍에 걸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밤새 노심초사 걱정하다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 가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단 6:20)” 이처럼 감사의 신앙은 다니엘을 맹수로부터 지켜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높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거룩함을 지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첫 번째 간증은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던 나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일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불평, 불만,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지옥 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묵상질문 1.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v.10)

2. "전에 하던대로" - 습관화 된 신앙생활은 위기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v.10)

적용질문 1.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2.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 감사를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김동조님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 합니다.

[세계적인 3대 테너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Luciano Pavarotti)와 플라시도 도밍고 (Placido Domingo),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Jose Carreras)를 꼽을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한 무대에 올랐으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인 카레라스는 마드리드 태생인 도밍고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결국 카레라스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1983년 카레라스는 백혈병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수년동안 이어진 치료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레라스는 백혈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자선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루는 치료를 받고 나서 별생각 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자선단체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직원의 말 한마디는 카레라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 이사장님은 플라시도 도밍고 이십니다.” 도밍고는 자신의 친구인 카레라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국에 백혈병 전문 병원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1987년 어느 날 카레라스는 다시 파바로티, 도밍고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도밍고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일세. 자네처럼 하늘의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노래를 못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일세.” 그 후 두 친구는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서로를 높여 주는 관계로 승화되어 파바로티와 함께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가 오해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지만,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 그 공동체는 일단 불완전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 있습니다. 나도 그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밍고와 카레라스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 13: 34-35).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여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용서가 사랑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데 사랑은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목숨 걸고 용서 못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서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본을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와 사랑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최성은 목사 드림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시

인도: 민철기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도 김연정 집사

제목 1. “나는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성경본문 에베소서 1:1-14

말씀선포 최성은 목사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 강해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도 Prayer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김연정 집사	1부 영분엘리엇 집사 3부 이정빈 집사 수요 김정숙 집사
보육	영아 구명희, 이혜정 유치 신철순, 성영자	영아 영희스트로지, 현주스윗 유치 옥자뽀, 남희토운머
주차장 Parking	권경수(2부) EM (3부)	권태운(2부) Ken Adkins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정순애, 박순덕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핏서, 김정숙, 정수잔슨 헌금: (1부) 최정범, 인자깅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이호영, 이다니엘	
주일오찬 봉사	9/9 빌립보 공동체 이종덕 마을, 안디옥 공동체 완두멜 마을 9/16 예루살렘 공동체 이명순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정수잔슨 마을 9/23 에베소 공동체 장형식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미나리베라 마을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9월	2018년 10월
9(주일)	전도회 월례회	14(주일) 전도회 월례회
16(주일)	하나님의 VIP 4기 개강 디모데 프로젝트 4단계 개강	15(월)-26(금) 터키선교
21(금)	시니어 공동체 모인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 VIP 10주 과정(년 4회 개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00.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 강해**
 이번주부터 서신서 에베소서 강해와 더불어 찬양과 중보기도, 개인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매주 수요일 저녁 6:45 여와나**가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수요성령예배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VIP 3기 종강 모임: 9/9(오늘) 오후 4:30. 담임목사님 댁**
- 청지기/돌봄지기 모임: 9/15(토) 오전 7:30. 베들레헴.** 모든 청지기/예비청지기/돌봄지기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9/15(토) 오후부터 예수마을 공동체 마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전도회 월례회: 9/9(오늘) 3부 예배후.** 각 전도회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 **남여전도회 모임 안내: 10월 전도회 모임 시, 회장 선출을** 해 주시고 **선출된 회장은 11월부터** 사역합니다. 전도회원들은 해당 나이 전도회로 가시면 됩니다. (계시관 및 간지 참조)
- 하나님의 VIP 4기 개강: 9/16(주일) 오후 1:30.** 환영반. (문의: 김성진 집사)
 새가족이나 성도들 중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신청 바랍니다.
- 디모데 프로젝트 4단계(일대일 양육 중급) 개강: 9/16(주일) 오후 1:30.** 베들레헴.
 디모데 2,3단계를 수료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서 교재 구입 바랍니다.
 ※ 교재를 미리 구입하여 **1과 예습(교재 P.14-21)과 성구암송(롬 10:9-10; 눅 5:8)**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비: \$10. (교재문의: 봉숙오글 전도사)
- 사역팀장 모임: 9/22(토) 오전 9시.** 성가대실. 2019년도 예산을 위한 팀장 모임을 가집니다.
 모든 사역팀장들은 빠짐없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49기 중보기도 사역: 10/1(월)부터 시작되는 제 49기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식: 10/3(수) 수요예배**시
- 영아/유치부 교사 모집 광고:**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유치/영아부에서 자녀를 섬겨 줄 교사를 모집합니다. 보육으로 섬겨 주시는 성도들께서는 결석 없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남궁근 목사

10. 예수마을 공동체 주일 3부 예배 봉헌송 순서

일시	담당 공동체	일시	담당 공동체
9/9(주일)	오금철 마을	9/16(주일)	목회자
9/23(주일)	장형식 마을	9/30(주일)	필라델피아 공동체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타코마 제일 침례 교회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선교와 신사도 운동과 교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적 선교와 성령 운동을 통해 교계와 교회들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오찬 후, 각 자가 먹은 자리 **정리/정돈**해 주시고, **의자/테이블 정리**하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오후 1시 20분부터 정리)
- ◇ **생명의 삶 9/9(주일) 주간** ※ **새벽설교는 홈페이지(www.tfbc.org)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날짜	본문	날짜	본문	날짜	본문
9/9(주일)	역대상 17:16-27	9/10(월)	역대상 18:1-8	9/11(화)	역대상 18:9-17
9/12(수)	역대상 19:1-7	9/13(목)	역대상 19:8-19	9/14(금)	역대상 20:1-8
9/15(토)	역대상 21:1-8	9/16(주일)	역대상 21:9-17	9/17(월)	역대상 21:18-22:1

◆ 교우동정(Compassion) ◆

- ◇ **사역자 휴가** 안재훈 목사 9/10(월)-21(금)

◇ 새가족

번호	성명	인도자	비고
137	Ulysses Alvarez	영분에스켄 그린	
138	James Ko	지인소개	
139	Saebom Ko	제임스 아내	
140	Regina Ko	제임스 딸	유치부
140	Kyle Ko	제임스 아들	영아부

- ◇ **중 보** Bradley Thomas, Joseph Ramsey, Michael Jakubec, Daniel Woo, Warren Glauner, Frank Torres, Chae S Howard, 박금옥, 안자훤택, 춘자플레처, 한옥순, 순동쿨루, 김명주, 옥란위커, 수지라피엣, 숙자나이트, 양레깅스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